

# 제주지역 음악축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콘텐츠 육성 방안\*

김태관\*\*

I. 제1장 서론	4. 제주국제관악제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5. 제주국제합창제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이론적 고찰	III. 제3장 국외 주요음악축제 운영사례
II. 제2장 국내 주요음악축제 운영사례	1. 이탈리아 베로나오페라축제
1. 통영국제음악제	2.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음악제
2. 대구국제오페라축제	3. 영국 에든버러군악대축제
3. 대관령국제음악제	IV. 결론 및 제언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1) 연구의 배경

1990년대 이후 제주는 1991년 제주도개발 특별법과 2001년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시작으로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되었고, 세계적으로 유일한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인 생물권보존지역(2002년), 세계자연유산(2007년), 지질공원(2010년)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제주의 변화는 정치, 환경, 문화, 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기회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제주의 관광자원과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접목한 다양한 문화관광축제 분야는 지역의 정체성 제고는 물론 지역민의 화합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한 수익 창출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 및 문화콘텐츠로 육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관광축제는 1995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1996년 412건에서 2001년 519건, 2003년 832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07년 1,200여 건이 개최되고 있다. 이러한 축제의 증가로 인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달성한 축제도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축제는 지역 이미지 제고,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지역주민의 화합과 일체감 조성이라는 지역축제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유럽중심으로 발달된 음악축제는 다양한 축제 중에서 활성화된 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음악제는 지역의 특화된 문화자원을 소재로 기획된 축제로서 오스트리아의

\* 이 논문은 2011년 본 발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논문임.

\*\* 문화예술학 박사,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기획이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년 약 2,100억 원에 달한다. 또한 영국 에든버러는 축제전략으로 연간 1,2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중 군악대축제는 20여 일간 진행되면서 유료관광객만 21만여 명으로 연간 약 1,320억 원의 경제파급효과를 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sup>1)</sup>

제주의 경우에도 60여 종류의 축제가 개최되고 많은 예산이 소비되고 있으나 투자하는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부실하게 운영되는 축제가 대부분으로 축제의 근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sup>2)</sup> 이런 현실은 1995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우수축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제주의 축제가 우수축제 이상에 선정되지 못하였고,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57개의 문화관광축제<sup>3)</sup> 중에 제주지역 축제로는 7,000만원씩 지원되는 17개 유망축제 중 제주정월대보름축제와 서귀포칠십리축제, 3,000만원씩 지원되는 21개 예비축제 중 서귀포최남단방어축제가 선정되는데 그쳤다. 반면 제주국제관악제와 제주국제합창제는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평가에서 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는 등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외부관광객 특히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주의 고유문화를 소재로 제작된 프로그램개발, 재원확보에 관한 다양한 전략수립, 재정자립도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련평가기관의 외부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요구받고 있다.<sup>4)</sup> 따라서, 이러한 외부평가를 통한 문제의식에 대한 해결방안과 본 연구의 목적인 제주지역 음악축제의 활성화요인을 분석하여 축제의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 2)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음악축제와 국내를 대표하는 음악축제에 대한 활성화 요인 연구를 바탕으로 제주국제관악제와 제주국제합창제의 운영현황, 조직 및 재원, 프로그램, 활성화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제주지역 음악축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역문화 소재의 음악축제가 지역을 상징하는 문화콘텐츠로의 개발과 육성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로 구분하였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김춘식·남치호, 『세계 축제경영』, 김영사, 2002, 101쪽.
- 2) 문화관광부 총괄보고서, 「한국 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 2006, 49쪽.
- 3) 2008년 대표축제는 보령머드축제와 안동국제탈춤축제 2개가 선정돼 8억 원씩 지원되고 최우수축제(춘천국제마임축제, 양양송이축제, 금산인삼축제, 김제지평선축제, 강진청자문화제, 함평나비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와 우수축제(연천구석기축제, 이천쌀문화축제, 화천산천어축제, 충주세계무술축제, 영동난계국악축제, 강경젓갈축제, 천안홍타령축제, 무주반딧불축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하동야생차문화축제)도 선정되어 각 3억 원, 1억 5,000만 원씩 지원되었다.
- 4)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 국고지원사업 평가결과보고서」, 2007, 115-119쪽.

첫째, 본 연구내용의 공간적 범위는 제주지역 국제규모의 음악축제인 제주국제관악제와 제주국제합창제로 한정하였다. 운영사례로는 국내·외에서 성공한 음악축제라고 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음악축제, 이탈리아 베로나오페라축제, 영국 에든버러군악대축제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국내의 경우에는 국제규모이면서 국비와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받고 3년 이상 매해 개최하고 있는 음악축제인 대구국제오페라축제, 통영국제음악제, 대관령국제음악제로 한정하였다.

둘째, 시간적 범위는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1995년부터 2009년까지의 문화관광축제의 일반현황을 연구하였고, 국내음악축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운영현황과 평가사례를 연구하였으며 제주국제관악제는 최초개최연도인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제주국제합창제는 최초개최연도인 2001년부터 2009년까지로 한정하였다. 특히 제주지역 음악축제에 대한 운영평가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를 조사하였다.

셋째, 내용적 범위는 세계음악축제와 국내음악축제의 경우 축제개요, 발전과정, 운영성으로 구분하였고 제주지역 음악축제는 축제의 배경 및 개요, 발전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조직 및 예산, 운영성으로 구분하였다.

연구방법은 이론연구와 선행연구검토 및 운영사례연구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주제와 연구내용을 연구하였다.

### 3. 이론적 고찰

#### 1) 축제의 개념

축제의 어원은 라틴어의 Festum에서 유래된 것으로 대중적인 기쁨(Joy), 환락(Merriment), 떠들기(Revelry)를 의미한다. 어원상으로 축제는 일에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떠들고 즐긴다는 놀이적인 성격이 강하다. 축제에 해당하는 Festival과 유사한 Feast는 우리말의 ‘잔치’에 가까운 뜻이고 또 Festing은 ‘단식’의 뜻이나 잔치 행사의 준비과정으로서 정화(Purification)의 성격을 갖는다.

축제는 사전적 의미로 개인 또는 공동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결속력을 주는 사건이나 시기를 기념하여 의식을 행하는 행위이다. 과거의 축제는 전통적인 의식의 후속으로 희로애락을 표출한 형태였으나 오늘날의 축제는 종교의식보다 지역의 전통, 환경, 유희를 중심으로 하는 볼거리문화로 인식되고있다. 우리나라에서 축제의 기원은 고대 부족국가시대의 제천의식에서 시작된다. 부여의 정월축제인 영고(迎鼓), 고구려의 동맹(東盟), 예의 무천(舞天), 마한의 농공시필기(農功始畢期)인 5월과 10월의 제천의례는 모두 한국적 축제의 원형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제천의례를 통해 신성한 종교의 장으로서 천신에게 제사지내고 음주가무로 놀이판을 벌이며 신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소망을 빌었다. 이러한 제천의례는 우리나라 축제 문헌상의 기원일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축제이다.<sup>5)</sup>

5) 김동혁·강열우·박재성·김철우, 『관광과 축제 이벤트론』, 신지서원, 2000, 120쪽.

축제는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라고 할 수 있고, 문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이흥재는 문화를 종합과학적 측면에서 해석하였다. 이에 문화란 후천적으로 학습되어, 집단이 공유하며 종적·횡적으로 교류됨으로써, 환경 각 부문과 유기적 관계를 맺는 광범위한 활동이라고 하였다.<sup>6)</sup>

지역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포괄하는 지역축제의 개념은 좁은 의미로 또는 전통적 의미에서 ‘지역의 역사적인 상관성 속에서 생성되고 전승된 전통적인 문화유산을 축제화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넓은 의미는 전통·축제·문화제·예술제·예술경연대회를 비롯한 각 지역의 민속예술공연 등 문화행사 전반이 포함된다.<sup>7)</sup> 지역축제는 지역의 문화가 종합되고 상징화된 행사로서 한 지역을 관광 상품화하는 것이고, 예술은 지역의례를 형성하는 중요한 원천으로 음악·미술·무용·연극·영화 등 다양한 장르가 존재한다.<sup>8)</sup>

## 2) 축제의 유형

송정일은 전통축제의 기능을 사회적 기능, 전통문화의 보존 기능, 생산적 기능, 종교적 기능으로 구분하였고<sup>9)</sup>,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은 축제의 기능을 통합과 신명, 조화로 보고 있다<sup>10)</sup>. 임재해는 우리나라의 전통축제들을 종교적 기능, 사회적 기능, 정치적 기능, 축제적 기능, 예술적 기능, 경제적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다.<sup>11)</sup> 축제는 한 사회의 정신적, 물질적, 감정적, 지적인 것의 총체적인 복합물로서 예술과 문학을 포함한 생활방식, 인간의 기본권리, 가치체계, 전통 및 신앙을 포함하여 민족이나 특정지역의 주민이 공감하는 유·무형의 현상 일체를 포함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축제는 지역주민의 애향심이나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통해 지역 주민의 연대감 고취를 목표로 하고, 지역의 관광 및 산업발전 등 대외적 이미지 고양과 외부 사회와의 다차원적인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다.<sup>12)</sup>

축제는 역사, 개최 목적과 장소, 행사내용 및 구성, 주제, 지향성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전통축제 또는 향토축제와 현대축제 등은 역사적 측면에서 구분하였고 지역축제와 초 지역적인 특별축제 등은 공간적인 측면에서 구분하였다. 또한 주민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축제 등은 개최목적에 따라 분류되었고, 전통문화축제, 예술축제, 종합축제, 기타축제 등은 행사내용이나 행사 구성형식에 따라 구분하였다.

축제의 지향성과 개최목적 및 목표 대상에 따라 내부지향형(내향형) 전통축제와

6) 이흥재, 『문화예술정책론』, 박영사, 2005, 10쪽.

7) 김명자, 『지역축제의 방향을 위한 시론』, 비교민속학연구 Vol. 12, 1995, 185-186쪽.

8) 박철·손해식, 「지역 문화축제에 대한 의례 분석적 접근과 관광 상품의 전략」, 관광레저연구 Vol.22(2), 1998, 43쪽.

9) 송정일, 『이벤트 플래닝』, 백산출판사, 2001, 11쪽.

10) 조홍윤, 「향토축제 활성화를 위한 모형개발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4, 38쪽.

11) 임재해, 『민속 문화론』, 문학과 지성사, 1986, 21쪽.

12) 문화체육관광부, 「한국 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2006, 47쪽.

현대축제, 외부지향형(외향형) 전통축제와 현대축제 등으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분류형식에 따라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면 대부분의 지역축제는 문화관광의 대상으로서 관광산업의 발전과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에 해당된다. 장정룡은 종합형 향토문화축제, 역사·제의형 축제, 민속놀이경연 중심축제, 예술제 등으로 구분하였고,<sup>13)</sup> 서연호는 역사적 시점에서 전통축제와 현대축제로, 공간적 측면에서 지역축제와 초지역적인 특별축제로 구분하고 있다.<sup>14)</sup> 그리고 손대현은 존재양식에 따라 대형이벤트, 축제, 소형이벤트로 분류하였다. 또한 김규원은 축제를 크게 예술축제, 전통지역축제, 지역특산물축제, 관광자원축제로 구분하였고 김병철은 축제의 지향성을 기준으로 지역축제를 유형화하였다.<sup>15)</sup> 하나의 축은 주로 축제의 개최목적이나 축제의 목표대상에 따라 공동체 지향성, 외부지향성으로 설정하였으며, 또 다른 하나의 축은 주로 축제의 소재나 프로그램 형태에 따라 전통지향성, 현대지향성으로 구분하였다. 정두진은 개최목적에 따라 주민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축제로 구분하였고 행사내용 및 구성형식에 따라 전통문화축제, 예술축제, 종합축제, 기타축제로 지향성 및 개최 목적에 따라 내부지향성축제와 외부지향성축제로 구분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축제의 개최 목적에 따라 주민화합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축제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축제의 프로그램 구성 형식에 따라 전통문화축제, 예술축제, 종합축제, 기타축제로 분류하였다.

이경모는 개최 기관별로 지방자치단체축제와 민간단체축제로 구분하였고, 프로그램별로 전통문화축제, 공연예술축제, 종합축제 등으로 구분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06 한국 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제시한 축제의 유형을 보면, 축제에 사용되는 소재에 따른 분류로 예술문화축제, 전통민속축제, 관광문화축제, 관광특산물축제로 구분하였다.<sup>16)</sup> 이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자별 축제 분류기준과 유형

연구자	분류기준	축제 유형
정두진 (2001)	개최 목적	주민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축제
	행사내용 및 구성형식	전통문화축제, 예술축제, 종합축제, 기타축제
	지향성, 개최 목적	내부지향형(내향형) : 전통축제와 현대축제 외부지향형(외향형) : 전통축제와 현대축제
문화관광부 (1996)	개최 목적	주민화합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축제
	프로그램 구성 형식	전통문화축제, 예술축제, 종합축제, 기타축제
김병철 (1998)	개최목적 목표 대상	공동체 지향성-외부 지향성 축제
	소재나 프로그램	전통지향성-현대지향성 축제

13) 장정룡, 「강원도 축제문화의 이해와 반성」 강원민속학, 제12집, 1996.

14) 서연호, 「축제의 미래를 위한 반성과 대안」 향토축제의 가능성과 미래, 방일문화재단, 1994, 47-64쪽.

15) 김병철 「강원도 지역축제의 활성화 방안 연구」, 강원개발연구원, 1998.

16)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006, 45쪽.

이경모 (2001)	개최 기관별	지방자치단체축제, 민간단체축제
	프로그램별	전통문화축제, 공연예술축제, 종합축제
	개최 목적별	주민통합축제, 문화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축제
	자원 유형별	자연, 조형구조물, 생활용품, 역사적 사건, 역사적 인물, 음식, 전통문화
	실시 형태별	축제, 지역축제, 카니발, 축연, 퍼레이드, 가장행렬
문화관광부 (2006)	축제의 소재	예술문화축제, 전통민속축제, 관광문화축제, 관광특산축제

본고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한 축제유형의 분류기준과 현황을 바탕으로 소재 및 내용별 분류기준을 사용하여 전통민속축제, 관광환경축제, 지역특산물축제, 예술문화축제, 기타 복합축제로 구분하였다.

전통민속축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적 내용 위주의 소재로 진행되고 관광환경축제는 지역의 관광, 환경, 생태 위주의 소재로 진행되며, 지역특산물축제는 지역의 특화된 농수산물과 작물 위주의 소재로 진행되는 축제이다. 또한 예술문화축제는 전시 및 공연예술 위주로 진행되고, 기타 복합축제는 스포츠 및 경연대회 등 소재와 내용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축제이다. 본 연구에서의 음악축제는 예술문화축제의 범주에 속하는 축제로서 대중음악축제는 제외하였다.

## II. 국내 주요음악축제 운영 사례

### 1. 통영국제음악제

#### 1) 축제개요 및 발전과정

현대음악의 거장인 통영 출신의 작곡가 윤이상을 기리기 위해 2000년 통영문화재단과 국제윤이상협회가 개최한 통영현대음악제가 모체이다. 매해 현대음악을 포함한 클래식음악 브랜드를 가지고 수준 높은 음악회, 음악도를 위한 아카데미, 국제음악콩쿠르가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타 음악축제와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축제를 시즌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봄 시즌은 연주위주인 페스티벌프로그램으로, 여름시즌은 음악학도들을 위한 아카데미 프로그램, 가을시즌은 악기별 콩쿠르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02년에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제가 설립되어 통영현대음악제를 운영하면서 국제규모음악제의 규모로 확대되었고 2004년부터 프로그램 특성별 시즌제 행사로 변경하여 매년 봄, 여름, 가을 등 3차례로 나누어 진행된다. 2009년부터 페스티벌시즌과 아카데미시즌, 콩쿠르시즌으로 진행되는데, 각각 통영국제음악제와 TIMF 아카데미,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로 나뉘어 행사가 열리고 주 연주장으로는 통영시민문화회관을 사용하고 있다. 형식과 장르에 따라 현대음악, 고전음악, 낭만주의, 교향악,

실내악, 오페라 및 음악극 등의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조직운영은 전체를 총괄하는 이사회, 재단 주관 행사의 프로그램 구성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 예산은 국비 3억 원, 도비 1억 원, 시비가 8억 원, 입장료수입이 3억 원, 판매수익이 1억 원, 후원금이 9천만 원 총 약 16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다. 세부내역은 <표 2>와 같다.

<표 2> 통영국제음악제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합 계	국비	도비	시비	입장료수입	판매수익	후원금
1,600	300	100	800	300	100	90

※ 출처 : 박창호, 「음악축제분석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2006, 재정리

## 2) 운영성과 및 활성화 요인

통영국제음악제는 출연하는 공연자 음악적수준이 세계최고인 점은 이 축제의 특징 중 하나이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공연은 매진사례를 이루고 있다. 2008년 3월 21일부터 6일간 열린 통영국제음악제에는 BBC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개막공연으로 좌석점유율은 2002년 82%에서 93%까지 상승했고, 전체 14개 공식공연 중 11개 공연이 매진되었다. 또한 프린지페스티벌로 불리는 자유로운 길거리공연에도 84개팀 1,000여명이 참가했다. 2009년 음악제에서는 총 17개 유료공연 중 7개 공연 전석이 개막전 이미 매진되는 등 90%이상 객석점유율을 기록했다. 통영시에서는 국제음악제로 4만 7,500여명의 관광객이 참여하여 33억 원 가량의 경제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영국제음악제의 성공요인을 보면, 지역의 문화적 유산이자 세계적인 음악가인 윤이상 작품 세계를 소재로 하여 현대음악과 실내악을 접목한 수준 높은 음회회를 들 수 있다. 또한 예술가 창작활성화를 위한 예술가 레지던스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음악공연과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 지역 중학교와의 MOU 체결을 통해 미래의 음악애호가이자 관객인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 또한 자원봉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민의 참여도를 높였다는 점 등 타 축제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수준 높은 음악연주와 외국과의 음악적 소통을 위한 통영국제음악제 상주 연주단체인 ‘TIMF 앙상블’의 음악적 활동은 국내·외로 축제를 홍보하는 좋은 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조직면에서 보면, 축제의 예술적 측면을 총괄하는 예술감독을 외국인으로 위촉하여 예술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는 점과 아시아·태평양현대음악제(ACMF)처럼 세계적인 음악제를 동시에 개최하는 등 우수한 국외 음악단체의 공연개최,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유력인사와 지역의 다양한 분야의 후원회 조직과 활동 등은 통영국제음악제가 활성화 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 2. 대구국제오페라축제

## 1) 축제개요 및 발전과정

대구국제오페라축제는 대구시의 문화산업 육성책의 하나로, 오페라축제를 영국 에든버러페스티벌과 같은 국제적 문화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구상되었다. 2003년 8월 대구오페라하우스 개관과 함께 대구를 세계적인 오페라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시작된 이 축제는 오페라하우스의 개관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공간은 지역을 근거로 하는 대기업이 대구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2003년 대구에 기증한 극장으로 기업메세나의 표본의 좋은 예이다.

2003년에 개최된 제1회 축제는 약 26일간에 걸쳐 대구오페라하우스를 중심으로 개최되었고 주요 작품은 ‘사랑의 묘약’, ‘토스카’, ‘심청’, ‘나비부인’이 공연되었다. 대구시립오페라단, 영남오페라단, 국립오페라단과 서울시오페라단이 참석해 총 12,600석 중 11,588명(좌석 점유율 92%)이라는 높은 관람실적을 이루어냈다.

2004년 제2회 축제는 국제규모로 처음 열리는 축제로서 이탈리아의 로마오페라단, 러시아 무소르그스키오페라단, 국내 최고 수준의 국립오페라단, 대구시립오페라단 등의 최정상급 출연진 1,255명이 참가하여 오페라 13회 공연과 관련 부대행사로 전 분야에 질적, 양적성장세를 보인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받았다. 13회의 오페라 공연 중 7회가 매진됐으며, 매 공연마다 90%이상의 객석점유율을 기록하였다.

2005년 9월 29일부터 10월 29일에 개최된 제3회 축제는 오페라 ‘리플레토’, ‘돈 조반니’, ‘카르멘’, ‘마르타’, ‘바스티앙과 바스티엔느’, ‘버섯피자’, ‘춘향전’을 공연하였다. 2005년 축제에서는 오페라 10회 공연 중 5회가 매진되었으며, 연인원 14,100여 명이 관람하여 평균 89%이상의 객석 점유율을 보였다.

2006년 제4회 축제는 메인 오페라의 성공적인 안착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메세나 활동 등으로 성공적인 축제라는 평가를 받았다. 개막작인 창작오페라 ‘불의 혼’은 개막 첫날 1,400여 석이 매진되었고, 사흘 동안 객석점유율이 79%를 기록했다. 특히 국립오페라단이 공연한 푸치니(G. Puccini) 오페라 ‘투란도트’는 이틀 간 관람객 수가 2,700여 명으로 객석점유율 98%를 기록하는 등 오페라축제의 성공 모델을 보여주었다. 또한 독일 칼스루헤국립극장과 대구오페라하우스가 공동 제작한 요한슈트라우스의 오페라 ‘박쥐’는 대구은행이 첫날 공연 좌석을 전석 구매한 것을 비롯해 교보생명, 동아백화점, 한국전력 등의 단체 구매로 76%에 해당하는 3,259석을 판매하였다.

2007년 제5회 축제는 오페라와 발레, 인형극 등 모두 13건 24회의 작품을 선보였다. 총 관객 21,700여 명, 객석점유율 88%(유료관객 81%)를 기록하였다.<sup>17)</sup>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예산 및 주요참가단체는 <표 3>과 같다.

17) 이 중에서 국립오페라단의 라 트라비아타와 소 오페라 ‘봄봄’이 매진을 기록했는가 하면 대구시립오페라단의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등은 작품성은 좋았지만 평균 유료관객 68%에 머물러 여전히 오페라 장르에 대한 대중의 무관심을 대변했다.



<표 3>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예산 및 참가 현황

연도	예산	참가 단체 수	주요참가 오페라단
2003	6억 원	4(1개국)	국립오페라단
2004	9억 원	6(3개국)	러시아 무소르그스키 극장 오페라단
2005	9억 원	5(3개국)	체코 프라하 국립극장 오페라단 등
2006	10억 원	9(3개국)	독일 칼스루헤 국립극장 오페라단 등
2007	14억 3천만 원	10 (7개국)	불가리아 소피아 국립극장 오페라단 등(예정)

※ 출처 :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조직위원회 자료 재정리.

## 2) 운영성과 및 활성화 요인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평가에 의하면, 각 분야별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서울을 제외한 국내 유일의 오페라극장에서 개최하는 국제오페라 축제라는 외형만으로도 독창성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 오페라 극장의 시즌 프로그램 구성과 차별성이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더 많은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협찬과 개인의 기부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고, 각 일정별 프로그램의 편차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예술성과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유사한 성격과 규모의 여타 행사와 비교하면 관객들의 참여와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공연·전통예술행사 평가사업<sup>18)</sup>을 보면, 대구국제오페라축제는 조직과 진행, 홍보에서 안정적인 운영 모습을 보여주어 전반적인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세부내용으로는 아시아 주요 공연장과의 파트너십 구축, 외국 오페라단과의 공동제작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점, 주제(오페라, 문학을 만나다)에 맞춘 문학 강좌 시리즈와 관객 서비스 차원의 다양한 체험 행사의 개발, 예술성과 대중성이 검증된 익숙한 작품들과 익숙하지 않은 작품들을 모두 포함시켜 시민의 문화 예술 향수권을 신장한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공연의 완성도가 높았으며 세계 수준의 해외 발레단 공연과 보조 프로그램들, 아마추어 성악 콩쿠르를 개최해 일반인 오페라 관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부분, 지역 언론과 방송 및 KTX 등을 활용하는 홍보 프로그램 등이 호평을 받았다. 한편 공연 현장에서의 다양한 홍보와 관객 서비스 등이 독창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sup>19)</sup>

## 3. 대관령국제음악제

18) 전국의 73개 사업 중 전체 3위를 차지하면서 전국 최우수(A) 등급에 선정되었고, 대한민국 대표적 인 음악축제로 평가받았다. 이 평가에서는 현장평가와 전문가 사를 통해 계획 및 비전, 집행 및 관리, 운영성과, 예술기여도 등 항목별로 진행됐다.

19)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0 공연전통예술행사 평가사업」, 2010.

## 1) 축제개요 및 발전과정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세계적인 음악가들의 연주회와 함께 젊은 음악도들이 캠프를 통해 다양한 음악회 공연과 마스터클래스 및 레슨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클래식음악중심의 축제로, 해마다 7월~8월에 대관령국제음악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여 진행되고 있다. 미국 콜로라도주 로키산맥 고지의 이름 없는 폐광촌을 세계적인 음악도시로 만든 아스펜음악제를 모델로 2004년에 시작되었다. 수준 높은 실내악단 세종솔로이스츠의 예술감독이며 뉴욕 줄리아드음악학교 교수인 강효를 예술감독으로, 강원도 대관령에서 약 20일간 개최되고 있다. 눈마을홀에서 개막콘서트로 시작해, 거장 음악가와의 대화, 저명 연주가시리즈, 떠오르는 연주가시리즈, 학생연주회, 세계적인 교수진들이 참여하는 마스터클래스, 바이올린·첼로·비올라 등 3개 분야에서 각 1명씩 뽑는 협연자 콩쿠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펼쳐졌다.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지역의 정체성을 배경으로 매년 새로운 테마를 설정한 가운데 연주회, 음악학교 운영, 찾아가는 음악회, 지역 예술단체 지원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정통 클래식 음악을 중심에 세우고 세계 정상급 음악가들을 초청하여 국제적인 음악인을 음악감독으로 초빙하여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운영방향이 성공요인중의 하나이다.

이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07년 공연예술행사 평가에서 최우수 행사로 선정되었다. 주요 평가내용을 보면, 프로그램 운영면에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예술적으로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었고, 특히 동시대의 음악인들이 위촉되고 연주되는 사례는 매우 참신하고 고무적인 기획이라고 평가되었다. 또한 국내의 다른 축제가 예술감독제를 잘 살리지 못하는 반면 이 축제는 예술감독제를 통해 행사의 완성도가 높아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반면, 음악학교 프로그램은 학생의 참가비가 높게 책정되어 향후 참가자에 대한 다양한 장학금 제도의 운영을 제안하였다.

운영면에서는 전문공연장이 아닌 리조트에서 진행되므로 진행스태프나 자원봉사자들의 서비스가 미흡하였고 행사지역 주변의 공연장에서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개선사항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축제 예산을 보면, 국고와 지방비의 의존율이 높으며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을 지적하면서, 체계적인 연주 프로그램 기획을 통한 수입의 극대화과 기업 협찬의 증대가 필요하고 운영 조직의 슬림화를 통한 예산의 절감을 제안하였다.

## 2) 운영성과 및 활성화 요인

2009년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이 축제가 외부인력만으로 진행되는 축제라서 강원도의 독특한 문화행사가 없고 대관령이 이 행사를 통해 문화예술의 중심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홍보측면을 보면, 국제음악제라고 보기에 해외 홍보계획이 미흡하고 방송매체 및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반면 행사전반을 소개하는 매뉴얼 제작과 통역서비스

는 잘 이루어졌으며 공연장 공간과 행사장 배치는 적절하고 공연장 주변의 편의시설도 우수하였으며 행사진행 인력의 관객 서비스는 친절하고 열정적이었다고 평가되었다.

대관령국제음악제의 경제효과는 2008년 140억 원의 경제파급효과와 205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효과별로는 내방객의 직접 지출비용이 49억원, 관광으로 생긴 추가비용 91억 원이었고 방문객 그룹(3.7명)당 소비지출액은 45만 7,000원에 달했다. 효과별로는 강원도의 이미지가 좋아졌다 89%, 강원도의 문화적인 이미지 상승 77%로 주를 이뤘고, 연주회에 대한 평가는 응답자의 85%가 만족, 93%가 재방문을 희망했다. 하지만 개선사항으로는 공연장 시설 개선과 적극적인 음악제 홍보, 음악제의 규모와 기간 연장 등을 꼽았다.

#### 4. 제주국제관악제

##### 1) 배경 및 개요

제주국제관악제는 제주 관악인들의 열정과 노력에 의해 1995년부터 시작되어 1998년에는 일본, 대만, 독일, 한국에서 참가한 전문양상블 단체, 관악독주 등 양상블축제를 신설하여 홀수해의 밴드축제와 병행하였다.

1999년 제4회 축제부터는 제주시와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었고 2000년부터 짝수 해에는 관악콩쿠르가 양상블축제와 동시에 개최되었다. 또한 2004년에 제주국제관악제(양상블축제)와 제13회 아시아태평양관악제(APBDA)가 동시에 개최됨으로써 APBDA 사상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고, 2005년에는 제주국제관악제 10주년을 기념하는 ‘제주원드오케스트라 서울공연’이 8월 18일 서울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2006년 축제에는 제주국제관악제와 세계마칭쇼밴드챔피언십제주대회(World championship For Marching Show Bands, Jeju, arena)를 동시에 개최하여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2007년에는 ‘도민과 함께하는 관악제’ 프로그램이 신설되었고 2008년에는 ‘마에스트로 콘서트’ 프로그램이 신설되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산하기구인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WFIMC)에 제주국제관악콩쿠르<sup>20)</sup>가 가입되어 제주국제관악제의 위상은 물론 제주브랜드를 높이게 되었다. 국제연맹에 가입되면 공식기구를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대회가 홍보되어 보다 많은 음악인들의 참여가 예상됨에 따라 축제의 질적 수준을 크게 높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병역법상 우리나라 출신의 참가자가 1, 2위에 입상할 경우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제주국제관악콩쿠르는 세계

20) 제주국제관악콩쿨은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되어, 2009년 4월 UNESCO 산하기구인 국제음악콩쿨세계연맹(WFIMC: World Federation of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s) 총회에서 가입 인준을 받아 국제적인 공신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연맹 가입으로 공식기구를 통한 전 세계 홍보 등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WFIMC는 1957년 설립됐으며, 러시아 차이콥스키 콩쿠르, 폴란드 쇼팽 피아노 콩쿨 등 120여 개 콩쿨이 가입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윤이상국제음악콩쿨이 2007년에 최초로 가입되었고, 2009년에 제주국제관악콩쿨과 서울국제음악콩쿨이 가입되었다.

적으로 유일하게 금관악기 전 부문 대상으로 진행되며, 경연 참가자 전원 합동캠프 방식으로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음악적 교류를 돕는다. 특히, 2004년 제13회 아시아 태평양관악제와 2006년 세계마칭쇼밴드챔피언십대회가 제주국제관악제와 동시에 개최되어 세계적 규모의 음악축제로 부상하였다.

제주국제관악제는 짝수 해와 홀수 해에 따른 각각의 특징이 있어, 주요행사 내용이 다르다. 홀수 해의 행사는 대중적 호응이 높고 축제성이 강한 반면, 짝수 해에는 전문성에 초점을 맞추어 행사를 진행한다. 홀수 해의 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대규모 밴드축제, 국내·외 관악단의 순회연주, 관악 거장 초청공연 등을 들 수 있다. 짝수 해에는 앙상블 공연, 국제관악콩쿠르 등이 주요 행사이다. 매해 공통적으로 실시되는 행사 내용으로는 외국 음악단 초청 공연 및 야외 순회공연, 환영음악회, 국내·외 관악단의 시가퍼레이드, 관악기 전시 및 수리서비스, 초등학교 및 동호인 관악단의 합주경연대회, 제주국제관악제 발전포럼 등이 있다. 특히 제주도 초등학교 관악단 경연대회는 오래전에 활동하다가 중단되었던 초등학교 관악단이 재창단되는 계기가 되어 매우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제주윈드오케스트라는 세계적인 작곡가에게 제주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소재를 바탕으로 창작곡을 위촉하여 제주의 관악 작품을 만들어 가고 그 공연을 음반 작업을 통해 데이터베이스화시키고 있는 작업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최근 제주의 장점인 유명관광지에서의 관악단 연주를 통해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효과를 얻고 있다. 제주국제관악제의 연도별 주요내용은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제주국제관악제 연도별 주요 내용

연 도	주 요 내 용
1995 (제1회)	- 제주국제관악제 창설 - 4개국 24팀 1,501명 참가(초청 인사 3명), 약 40여회 공연 - 세미나 및 공개강좌 10여회, 특별행사 2회, 보조프로그램 3개
1997 (제2회)	- 7개국 27팀 1,518명 참가(초청 인사 9명), 약 50여회 공연 - 세미나 및 공개강좌 10여회, 특별행사 2회, 보조프로그램 3개
1998 (제3회)	- 2개국 14팀 700여명 참가(초청 인사 5명), 약 50여회 공연 - 세미나 및 공개강좌 10여회, 특별행사 2회, 보조프로그램 3개 - 소규모의 앙상블축제 신설하여 홀수해의 밴드축제와 병행
1999 (제4회)	- 밴드축제, 세미나 및 공개강좌, 특별행사, 보조프로그램 등 - 8개국 40팀 2,300명 참가(초청 인사 20명), 약 60여회 공연 - 제주시와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 - 제주윈드오케스트라 창설 및 축제 연주 전담 관악단 운영
2000 (제5회)	- 앙상블축제, 세미나 및 공개강좌, 특별행사, 보조프로그램 등 - 9개국 32개팀 1,120명 참가(초청 인사 14명), 약 40여회 공연 - 제주국제관악콩쿠르 신설, 기타 기본 행사 개최
2001 (제6회)	- 밴드축제, 세미나 및 공개강좌, 특별행사, 보조프로그램 등 - 14개국 55팀 2,985명 참가(초청 인사 19명), 약 70여회 공연 - 숲속의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신설, 기타 기본 행사 개최
2002 (제7회)	- 앙상블축제, 세미나 및 공개강좌, 특별행사, 보조프로그램 등 - 11개국 29팀 937명 참가(초청 인사 22명), 약 50여회 공연

	- 관악 콩쿨르 입상자 음악회 개최, 기타 기본 행사 개최
2003 (제8회)	- 밴드축제, 세미나 및 공개강좌, 특별행사, 보조프로그램 등 - 10개국 43팀 2,640명 참가, 약 80여회 공연 - 제1회 초등학교 합주경연대회 신설, 기타 기본 행사 개최
2004 (제9회)	- 앙상블, 세미나 및 공개강좌, 특별행사, 보조프로그램 총 60여회 공연 - 관악제 : 9개국 13개팀 96명 / 아태관악제 : 6개국 57개팀 3,454명 참가 - 초청 인사 : 관악제와 아태관악제 포함 51명, 약 90여회 공연 - 제주국제관악제와 제13회 아시아태평양 관악제 동시에 개최 - 아시아태평양관악연맹 총회 개최(회원국 관악지도자 70여명 참가)
2005 (제10회)	- 밴드축제, 세미나 및 공개강좌, 특별행사, 보조프로그램 등 - 12개국 51개팀 2,800명 참가(초청인사 14명) - 제1회 대한민국 동호인 관악단 경연대회 신설, 기타 기본행사 개최
2006 (제11회)	- 앙상블축제, 세미나 및 공개강좌, 특별행사, 보조프로그램 등 - 세계마칭쇼밴드챔피언십제주대회 개최(세계 19개국 24개 마칭밴드) - 관악제 : 16개국 25팀 1,000명 참가(초청인사 36명) - 마칭쇼밴드 : 10개국 27개팀 2,300명 참가(초청인사 15명) - 열한시 콘서트 신설(도 문예회관 대극장)
2007 (제12회)	- 밴드축제, 세미나 및 공개강좌, 특별행사, 보조프로그램 등 - 12개국 47개팀 2,650명 참가(초청인사 17명) - 도민과 함께하는 관악제 신설(노형기적의공원, 성산일출봉 야외공연장, 저지 예술인마을 야외공연장)
2008 (제13회)	- 앙상블축제, 세미나 및 공개강좌, 특별행사, 보조프로그램 등 - 17개국 30개팀 1,800명 참가(초청인사 50명) - 마에스트로 콘서트 신설, 지휘 공개강좌, 협연, 관악 공연 등
2009 (제14회)	- 밴드축제, 세미나 및 공개강좌, 특별행사, 보조프로그램 등 - 9개국 41개팀 1,900여명 참가(초청인사 20명) - 운영조직인 축제조직위원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4월 22일 등록) - UNESCO 산하기구인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WFIMC)에 가입

※ 출처 : 제주국제관악제 홈페이지(<http://www.jiwef.org>) 재정리.

## 2) 조직과 예산

제주국제관악제의 운영조직은 2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축제의 전반적인 운영과 발전 방향, 향후 추진계획을 큰 틀에서 심의·결정하는 조직위원회와 조직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집행하고 추진하는 집행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위원회는 제주도청의 관련부서 국장과 도의회 문화관광위원, 도교육청의 국장, 제주도내 관광협회 및 관련 임원, 협찬업체의 임원, 도내 음악대학의 교수와 고교의 교사, 제주도내·외 음악협회 주요 임원 약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관련 분야(학계, 음악계 등)의 민간 전문인으로 능력과 덕망을 인정받는 인물로 위촉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이다. 또한 축제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이외에 음악적인 부분을 운영하고 조정하는 역할인 예술감독에 예수한(대만 국립사범대학교 교수)과 아르민로진(독일 슈트트가르트 음대교수)이 콩쿠르 심사위원장을 맡아 국내·외 음악 전문가가 적절하게 조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무와 집행 전반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상설 운영되고 있으며 축제 전문관악단인 제주윈드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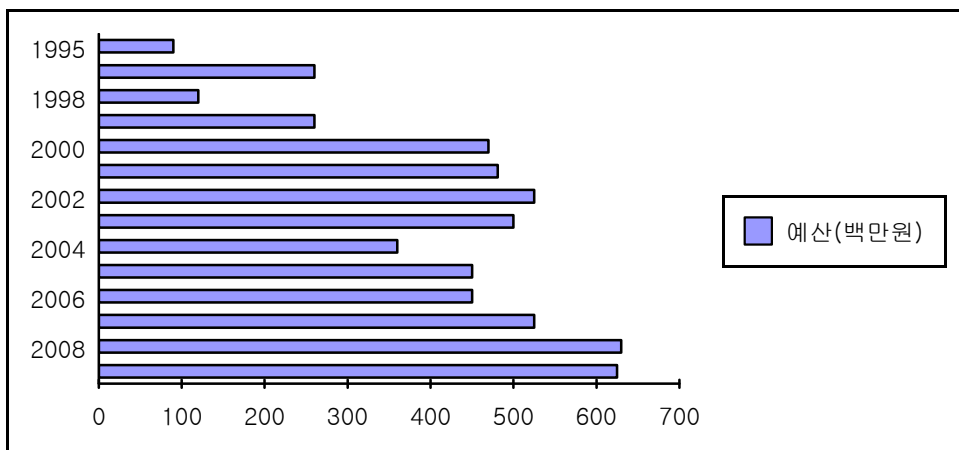
제주국제관악제는 1995년 개최 당시 약 5,000만 원의 지자체의 예산과 협찬금 4,000만 원으로 시작하여 2009년 현재 국비 1억 원, 지자체 예산 4억 2,500만 원, 협찬금 1억 원 총 6억 2,50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중 제주은행의 협찬은 열악한 제주 지역의 기업 메세나 운동을 대표하는 좋은 예로서 지난 2003년부터 꾸준히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국제관악제의 연도별 예산현황은 <표 5>와 <그림 1>과 같다.

<표 5> 제주국제관악제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도	예산 구성			
	합계	지자체	국비	기타
1995	90	50	-	40
1997	260	80	-	180
1998	120	40	-	80
1999	260	240	-	20
2000	470	460	-	10
2001	481	300	81	100
2002	525	419	81	25
2003	500	210	90	200
2004	360	200	100	60
2005	450	250	100	100
2006	450	200	100	150
2007	525	300	100	125
2008	630	400	100	130
2009	625	425	100	100

※ 출처 :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자료 재정리.



<그림 1> 제주국제관악제 연도별 예산 현황

### 3) 운영성과 및 활성화 요인

연구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제주국제관악제에 참가한 임원, 연주자 등 참여자는 국외 참가 앙상블 및 관악단이 5개국 10개 팀 170여 명, 국내 참가 앙상블 및 관악단이 7개 팀 230여 명, 초청 및 협연자가 10개국 50여 명, 독립무용단 40명, 트롬본

및 플루트 캠프 참가자 2개 팀 200명, 도내 참가팀은 11개 팀 550여 명 등 17개국 30개 팀 총 1,300여 명으로 계측되었다. 이러한 참가자의 제주지역 내 지출액이 지역경제에 파급시킨 직·간접적 효과를 분석하면 총 생산 파급액은 14억 5,431만 원으로 분석되었다.<sup>21)</sup>

문화체육관광부의 2009년 평가 자료를 보면, 음악예술의 발전과 문화예술향수권의 확대라는 면에서 국고지원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행사라고 평가하였으나, 행사의 규모와 연혁에 비해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은 미흡하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사업운영 면에서는 집행위원의 명단은 있으나 업무별 구체적 조직은 미비해 보이고 도내 인사 중심의 현재의 조직은 외부의 시선으로는 다소 폐쇄적으로 여겨지므로 국제 행사인 만큼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사무국에 지역을 떠나 전문적인 인력 투입을 제안하였다. 홍보측면의 평가내용을 보면, 국제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의 성격과 부합되는 홍보 전략이 미흡하고 대부분 제주방송에서 이루어지는 점, 홍보예산 대부분이 현장홍보에만 집중되어 중앙과의 홍보가 단절되는 점 등은 개선사항으로 지적하였고 이를 위해 홈페이지의 효과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공식적인 평가와는 별도로, 2009년 제주국제관악제 포럼에서 제주국제관악제가 제주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자리 잡으려면 실내공연장 못지않은 음향시설과 여건을 갖춘 야외음악당 신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탕글우드음악축제의 야외 음악당이며 주 공연장인 쿠세비츠키 뮤직세드가 지붕이 있는 5,100석과 야외 잔디밭에 1만 명까지 수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은 제주에서 벤치마킹 할 부분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 포럼에서 김성호는 제주국제관악제로 인해 제주지역에 다양한 장르의 음악단체 탄생의 계기가 되었고, 축제와 콩쿠르의 활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관악인의 국제교류와 세계적인 관악작곡가들의 작품세계 조명 등은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손색이 없으며, 세계적 작곡가에 제주를 소재로 관악창작곡 위촉을 통하여 음악을 통해 제주를 세계에 알리는 홍보메신저의 역할은 물론 제주도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하였다고 밝혔다.<sup>22)</sup>

강일중의 『공연예술축제를 만드는 사람들』에서 이상철은 향후 제주국제관악제의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관악으로 특화된 제주지역 음악축제의 의의를 더욱 확대시켜나가야 한다. 제주국제관악제는 1995년 지역의 관악인들이 주축이 되어 시작된 축제로 관악합주와 관악앙상블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면서, 국제관악콩쿠르 개최를 통해 관악의 대중성과 전문성을 고루 추구하는 통합적인 관악전문축제로 성장하였다. 특히 이러한 통합적인 음악축제 시스템은 관악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일하고 관악콩쿠르는 최대 규모이다. 또한 금관악기콩쿠르 전 부문 통합운영, 심사위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특별연주, 콩쿠르의 부문별 우승자들의 차기년도 초청공연 등 관악축제와 콩쿠르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잘되고 있는 장점들

21) 이은정·황경수·고태호, 『제주국제관악제가 제주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VOL.10, No.11, 2009, 3506-3515쪽.

22) 2009년 제주국제관악제 발전을 위한 포럼, 2009년 8월 19일, 제주도문예회관.

이 곧 제주국제관악제의 특징과 매력이므로 이를 더욱 보강하여 확대시켜나가야 한다.

둘째, 제주국제관악제는 서양음악과 관악분야가 발달된 외국에 잘 알려져 있는 음악축제로서 홍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외국 관광객에 대한 방문 유도를 통해 도외 관광객 유치를 장려하고, 제주도민들이 자원봉사자와 관객으로서 축제참여를 통해 지역민의 예술문화 향유권을 신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본 축제의 궁극적인 목표인 제주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술문화 관광상품으로 육성해야 한다.

셋째, 제주국제관악제로 인해 지역사회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제주의 이미지를 국내·외로 홍보하고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다양한 효과를 주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제주가 세계관악의 메카로 성장하기 위해 상설화되고 전문화·체계화된 전문 관악단을 육성해야 한다.

넷째, 세계 일류 음악축제인 아스펜음악제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젊은 음악도를 위한 음악아카데미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제주관악아카데미와 국제음악캠프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공연, 캠프, 마스터클래스에 적합한 국제규모의 전문공연장 또는 복합문화공간을 건립해야 한다.

## 5. 제주국제합창제

### 1) 배경 및 개요

제주국제합창제는 탐라합창제를 모태로, 제주음악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음악협회 제주도지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뜻이 결합되어 탄생된 음악축제이다.

2001년에 시작된 제주국제합창제는 최초 개최당시 탐라전국합창축제로 진행되다가 2008년부터 제주국제합창제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제주국제합창제는 한국 합창의 활성화와 제주 문화관광산업에 기여하고자하는 목표 아래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합창제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주를 대표하는 합창경연과 창작곡 및 성악 중심의 음악축제이다.

참가인원을 보면, 매해 전국에서 찾아오는 합창단이 20여 개 단체와 가족 및 음악관계자를 포함하여 약 1,000여 명의 외부단체가 참가하고 있으며 도내 합창단 또한 약 15개 단체 약 800여 명이 참가하고 있어 지역경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는 국제규모의 합창제로 추진되어 매해 약 6개국 500여 명의 외국 음악인이 방문하면서 지역경제효과는 물론, 제주의 고유한 문화와 예술,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국내·외로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2001년 최초 개최 당시 제주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음악협회 제주도지회가 주관하면서 협회 임원이 자동으로 축제의 조직위원이 되어 활동하였고 한국음악협회와 한국합창연합회의 회장단은 조직위원회의 당연직 고문과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었다. 2003년 제3회 축제부터 탐라전국합창축제조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한국음악협회제주도지회와 공동주관하였고 조직의 구성은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2005년에 사무국 조직이 일부 상설로 변화되었고 2006년부터는 축제 조직위원회가 한국음악협회제주도지회와 분리되어 단독으로 주관하였다. 축제 조직위원회가 단독으로 주관하면서 사업의 진행속도나 운영이 매우 발전적으로 진행되었고 예산의 집행, 프로그램의 기획 등의 분야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집행되었다. 이러한 조직은 2008년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면서 더욱 짜임새 있는 조직으로 변화하였고 국제규모로 확대되면서 ‘제주국제합창제’로 행사명이 변경되었다. 이후 국고 보조금의 규모나 지자체의 지원규모가 확대되었고 참가단체 또한 외국단체가 포함되면서 음악인 출연자가 1,700여 명에 달하였다.

## 2) 조직과 예산

제주국제합창제조직위원회는 크게 2개 부분으로 구분되었는데 합창제의 큰 틀을 결정하고 전반적인 운영과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와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집행위원회로 구분되었다. 운영위원회는 다시 음악을 전공하여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위원과 자문위원 및 고문단으로 구성되었다. 이 운영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전국규모의 합창연합회 및 한국음악협회와 작곡가협회 등 음악전문가로 구성되었고 자문위원과 고문단은 도내의 언론사 임원, 관련 학계교수로 구성되었다.

집행위원회는 지원단과 사무국으로 구성되었는데 지원단은 제주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의 문화예술과의 담당자 또는 예술단의 단무장으로 구성되었고 사무국은 축제 초창기부터 본 축제의 실무를 담당하여온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실무의 대부분은 사무국에서 이루어졌고 행사 약 3개월 전부터 사무국(약 3명)이 상근으로 가동되었으나 안정적인 운영은 재정 여건상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회의 『2007 제주축제 평가백서』의 평가내용을 보면,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준비기간이 1년이지만 조직이 상설로 운영되지 않았고 도외에서 참가한 경연 팀의 숫자, 공연장에 모인 관객이 저조한 것으로 보았을 때 축제의 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조직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3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였다.<sup>23)</sup>

재정운영을 보면 2001년 첫회는 지자체로부터 1억 원의 예산으로 시작하였고 이후 2002년에는 경륜사업비 3,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3,000만 원이었다가 2003년에는 다시 지자체예산 1억 원으로 운영되었다. 2004년과 2005년에는 지자체 예산 1억 5,000만 원으로 운영되었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 연속 정부에서 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지자체에서도 1억 3,5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상승되어 행사 총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8년부터는 국제규모의 축제로 확대되면서 예산 또한 지자체에서 1억 5,000만원과 국비에서 2억 원의 예산으로

23)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회, 「2007 제주축제 평가백서」, 239쪽.

총 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되었다. 2009년에는 지자체와 국비 각 2억 원으로 총 4억 원의 예산으로 증가하였다.

3) 운영성과 및 활성화 방안

제주국제합창제조직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2001년 첫 회에 900여 명의 음악인이 참가하였고 2003년부터는 어린이 합창단의 참가로 매해 1,200여 명 이상의 출연자가 참여하였다. 국제규모의 축제로 확대된 2008년에는 경연대회, 솔리스트 연주자, 성악가, 시인, 작곡자, 동반자 등 약 1,600여 명의 음악인 및 관계자의 참여로 축제 참가자가 증가하였다. 2007년까지 전국규모의 축제에서는 외국인의 참여가 매우 제한되었으나, 2008년 국제규모의 행사로 확대되면서 예산의 증가와 행사 규모의 확대로 외국인의 참여가 증가하여 음악을 통한 제주의 홍보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합창경연대회의 참가와 전문합창단 초청 공연만을 위해 제주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 후 제주관광을 패키지로 넣고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참가자 현황을 보면 2006년까지 총 6회를 거치면서 2001년부터 시작한 성인합창경연대의 참가단체는 평균 13팀이고, 2005년부터 시작한 어린이합창경연대회는 평균 5팀으로 약 250여 명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창작곡(가곡, 합창곡)에 위촉한 작곡가와 작사자(시인 등)는 매해 약 11명에서 18명으로 파악되었다. 초청 단체는 매해 평균 12개 단체를 초청하였고, 축제 관련 음악가 및 예술가를 매해 25명에서 35명을 초청하고 있다. 특히 2002년엔 창작합창곡 경연대회가 추가되면서 시인과 작곡가와 성악가가 특별출연하게 되면서 약 50여 명의 예술가가 참여하였고, 2005년부터 소년소녀합창경연대회와 합창발표회가 추가되면서 어린이 약 250여 명과 보호자 약 100여 명이 동반 참여하는 효과를 보았다.

<표 6> 제주국제합창제 참가인원 현황

단위 : 연도 / 인원(수)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창경연대회 창작곡발표회	도외	350	440	420	475	490	580	585	610	620
	도내	70	75	95	95	95	110	115	150	160
초청단체 및 개인	도외	320	330	340	360	395	480	495	580	610
	도내	120	110	185	180	230	260	280	340	370
총 계		860	955	1,040	1,110	1,210	1,420	1,475	1,630	1,760

※ 출처 : 제주국제합창제 조직위원회 자료 재정리.

제주국제합창제의 특징은 매해 성인 아마추어 합창경연대회를 기본으로, 제주를 소재로 한 시를 바탕으로 전문작곡가에게 의뢰하여 제주노래를 창작해 가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매해 약 1,700여 명의 음악인(도외 평균 900여 명)이 참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국제 규모로 확대되어 외국 관광객 유입 효과도 매우 높아졌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제주국제합창제는 제주를 소재로 한 시를 바탕으로 창작곡을 만들고 음반 제작을 통하여 제주를 알리는 작업을 한다는 점을 매우 높게 평가 받았다.<sup>24)</sup> 그러나 2007년 평가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더욱 많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행사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을 모으고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입체적이고 폭넓은 홍보, 이벤트 차원에서의 공연 및 행사 유치, 지역 사회의 교수 및 교사들과의 협조체계구축, 인터넷을 통한 감상 공간의 확보 등이 요청되며, 제주가 가진 관광 자원을 활용하는 부분이 미약하여 제주의 아름다운 분위기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음악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종합예술적인 개념이 현재보다 더 많이 부각되어야 한다고 평가되었다. 이러한 평가이외에 외부지역 음악전문가와 지역의 음악애호가 및 행정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 행사의 정책세미나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추미경은 이 축제가 국제 규모의 축제로 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축제의 정체성, 프로그램 등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고 전국 규모의 축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더 나아가 국제적 축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축제 조직으로서의 운영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합창축제에 대한 예술 감독과 프로그램 기획을 전담할 전문 인력의 구조, 축제 운영의 합리성과 체계성을 구축하기 위한 축제 운영감독 또는 사무국장의 구조, 기술적 부분에서의 전문성, 축제 행사장의 기획과 운영에 대한 전문성 등이 분화되어 체계화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전국적, 국제적 규모로 확장될수록 홍보 및 마케팅에 대한 인력도 전문화를 강조하였다.<sup>25)</sup>

2007 축제조직위원회 세미나에서 우지숙은, 제주국제합창제가 나아갈 방향은 ‘제주를 대표하는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문화상품으로의 육성’이라고 강조하였다. 프로그램면에서는 전문성과 더불어 대중성을 안고 가야하는 과제도 있고 제주만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주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지키는 부분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또한 강문철은 제주를 소재로 만들어지고 있는 창작곡에 대한 중요성과 타 지역의 축제와의 차별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예산확보의 어려움에 대하여 타 지역의 기업메세나처럼 기업에서 문화예술 단체 또는 행사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제주은행에서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에 매해 기업메세나의 일환으로 광고비를 기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며, 본 합창제의 경우도 기업메세나의 형식으로 지원받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제작되어진 제주의 노래 음반을 재정비하여 판매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저작권등록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본 합창제의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전반적으로 재원확보와 축제참여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24) 예술경영지원센터, 「2006 국고 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 결과」, 119쪽.

25) 추미경(다움문화예술기획 연구회 상임이사,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 2007 탐라전국합창축제 정책 세미나, 2007년 7월 16일, 제주문화예회관 소극장.

### III. 국외 주요음악축제 운영 사례

#### 1. 이태리 베로나오페라축제

##### 1) 축제개요 및 발전과정

이탈리아는 유럽 남부에 위치하여 세계 오페라와 성악음악의 발상지이자 중심으로 잘 알려져 있다. 베로나는 이탈리아 북부지역에 베네토 주에 있는 인구 26만명의 도시로서 베로나오페라축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음악축제이다. 축제 기간인 두 달간 약 80만 명의 관광객들이 이 도시를 방문하고 있으며, 베로나 지역은 셰익스피어의 명작 ‘로미오와 줄리엣’의 무대가 있어 이와 관련된 관광을 하기에 좋은 곳이다. 특히 축제장소인 아레나 원형 경기장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 모든 공연은 밤9시에 시작하며 공연시작 전에 관객들에게 촛불을 들게 하는 의식으로 유명하다.

베로나오페라축제는 원형 야외극장 아레나에서 고대 극장환경을 그대로 활용한 축제로서 1913년 시작하여 현재까지 90여 회에 달한다. 이 축제는 오페라 가수과 극장 기획자의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하였다. 1913년 테너 오페라 가수 지오바니 제나텔로(Giovanni Zenatello)와 극장 기획자였던 오토네 로바토(Ottone Rovato)는 베르디 탄생을 기념하는 오페라 축제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고심하던 중 베로나에 있는 원형극장 아레나에서 고대적 극장환경을 그대로 활용하는 야외 오페라축제를 기획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공연된 베르디의 아이다 공연은 대성공을 거두면서 베로나오페라축제가 시작되었다.

##### 2) 운영성과 및 활성화 요인

베로나오페라축제는 원형 그대로의 건축물을 활용하여 고대 원형극장의 묘미를 최대한 살리고 있다. 극장 1/4이 무대로 할애되고 나머지 3/4과 아레나 경기장 평면 일부가 관중석으로 할애되어 약 2만 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고, 아레나 공연효과를 충분히 내기 위해 인공 음향과 관객석의 조명은 사용하지 않는다.

로마시대 검투장으로 이용됐던 아레나원형경기장은 현재 시에서 유적과 오페라공연 등을 관람할 수 있는 극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오페라극장으로서의 용도뿐만 아니라 셰익스피어 연극제나 록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공연과 뮤지컬 등이 열리는 곳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매년 5월~9월 중 각종 콘서트 개최를 위해 개방되는 아레나는 2009년에 72회에 걸쳐 공연이 진행됐고, 이 중 오페라 상영만 49회에 달한다. 오페라 이외에 음악과 관련된 공연에만 3만유로(한화 약 4,500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이는 시의 재정운영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sup>26)</sup>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게 된 축제는 대체로 처음부터 화려한 주목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작고 소박하게 출발하여, 점차 축제 프로그램과 규모가 확대되면서 축제의

26) 진민수, 강원도민일보, 2010년 11월 10일.

정체성과 지역이나 도시의 장소성이 결합되었고, 축제와 그 개최장소가 결합된 문화적 거점으로서의 통합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공통점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의 고유하고 독특한 소재나 장점들은 베로나오페라축제가 성공하게 된 요소들이다. 활성화요인은 <표 7>과 같다.

<표 7> 베로나오페라축제 활성화요인 요약

활성화 요인	세부내용
기획 및 프로그램	- 초기 : 베르디와 푸치니 오페라 -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대중적 오페라 공연)
다양한 재원확보 프로그램	- 입장권 수입으로 자체 재원 확보(오페라 매표 수입 약 500억리라) - 총 예산 1000억 리라(500억~550억원) - 베로나 시당국 230억~240억리라, 베로나 인근도시 20억리라, 4개 민간 후원단체에서 3년에 한 번꼴로 90억리라, 은행 약 450억~500억 리라 융자지원.
지역 자원활용	- 지역특색(역사적 유산인 야외 경기장, 오페라 전통)과 관광산업(이태리의 활성화된 관광)을 접목시킴.
조직의 효율화	- 민간 후원 단체 중심 - 전문가 중심의 축제위원회(관은 지원, 계약기간 감독일임) - 지역민의 철저한 축제 참여로 인한,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 방지
사회 기여도	- 매해 약 50일간 80만 명의 관람객으로 약 3700 억원 수입 - 2002년 경제효과는 약 7천억원(베로나 대학 연구 보고서) - 야외 경기장 수용인원 약 2만명(평균입장료 10만원)

## 2.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음악제

### 1) 축제개요 및 발전과정

잘츠부르크는 유럽 중부 오스트리아의 중서부 독일 국경에 위치한 인구 15만 명의 도시이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배경 도시로 유명하고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W. A. Mozart)의 고향이자 지휘자 카라얀(Herbert von Karajan)의 출생지이다. 이러한 지역의 고유한 자산만으로도 이 도시는 세계 최고의 음악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할 수 있다. 모차르트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1920년 시작된 이 페스티벌의 공연장은 메인 콘서트 홀로 대극장과 소극장, 펠젠라이트슐레 등 3개의 극장이 하나로 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이루어졌고 매해 7월부터 시작하여 약 40일간 개최된다.

축제기간에는 수많은 관람객이 방문하는데, 2001년의 경우 42일(7/21~8/31)동안 20만 9,315명이 공연을 관람하였고 좌석의 93%가 채워졌으며 이 중 외국인 방문객은 68%로 조사되었다. 취재를 위해 33개 국가에서 546명의 기자들이 프레스 센터에 등록하였고, 15개 채널의 TV와 몇 개의 영화사들 그리고 30개의 라디오방송국이 취재하였다. 2002년도 개최된 페스티벌의 작품은 오페라 9편, 드라마 11편, 콘서트 12개 등으로 구성되어 총 166회의 공연이 개최되었으며, 23만 명이 방문하였다. 한해 평균 20여 만 명의 관람객이 약 600억 원을 소비하고 좌석의 93%가 채워진다. 이

중 약 70%가 외국인이고 공연 티켓은 보통 6개월 전에 예매가 마감된다. 공식 조직은 잘츠부르크축제재단으로 상근직원은 180명(행사기간 중 임시직인원은 총 3천명)이고 1월부터 12월까지 7개의 소규모 축제를 개최하고 메인 축제는 매해 7월말에서 8월말까지 한 달간이다. 축제예산은 499억 원으로 자체수입이 74%이고 보조금이 26%이다.

## 2) 운영성과 및 활성화 요인

2008년 잘츠부르크음악제는 7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37일간 열렸다, 축제대극장과 모차르트하우스 등 시내 13개 공연시설에서 오페라 43회, 연극 68회, 콘서트 78회 등 모두 189회의 공연이나 연주가 있는 가운데 연인원 25만 3,850명의 관객을 끌어들이었다. 티켓 판매액은 2,520만 유로에 달했다.<sup>27)</sup>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을 통해 시가 얻는 경제적 효과는 2억 2,500만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축제의 성공 요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이 낳은 천재음악가 모차르트의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최고의 품격을 지닌 음악축제를 창출해내고 있다. 페스티벌 감독들은 고전을 현대인의 감각에 맞게 현대적인 표현방식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무대로 만들고 있다. 그럼으로써 전통과 혁신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낸다.

둘째, 연방 정부와 지방 행정부가 행정 및 재정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연방법이 인가한 재단의 확고한 조직체계에 의해 운영되고 중앙과 지방 행정부로부터 상당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다.

셋째, 전문가들이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집행과 예술 및 경영 감독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고 세계 음악 애호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는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한다. 이미 공연 2년 전에 공연될 전체 작품을 선택하고 당해의 공연은 연초에 정확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넷째,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감독, 지휘자, 배우, 성악가들의 한 자리에 모인다는 사실 자체가 관객에게 강한 관람욕구를 불러일으킨다.

다섯째, 1928년에 개발한 로고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는 축제 감독이 바뀌면서 로고도 바뀌는 페스티벌하고는 달리 축제가 성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여섯째, 후원자들과 음악 애호가들을 철저히 관리한다. 페스티벌에 대한 안내 책자를 보내주며 세계적인 오페라 스타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고 입장권 구입 시 우선권을 주는 등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곱째, 충분한 홍보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종 자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홍보책자 축제저널을 연간 두 번 발행하여 페스티벌에 대한 사항과 다른 음악회와 공연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덟째, 공연이 TV와 라디오를 통해 세계로 중계됨으로써 공연의 상품화와 홍보

27) 강일중, 「공연예술축제를 만드는 사람들」, 연극과 인간, 2009, 81쪽.

를 동시에 꾀한다. 즉 중계권료로 수입을 올리면서 광고 시너지 효과를 최대로 활용한다.

아홉째, 세계 최고 수준의 공연과 연주이지만 청소년들까지도 쉽게 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할인티켓을 발행한다.

열째, 도시가 소유하고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최대로 활용한다. 아름다운 성과 정원에서 연주회와 공연을 개최함으로써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럼으로써 고객들의 만족을 극대화하고 있다. 활성화요인은 <표 8>과 같다.

<표 8> 잘츠부르크음악제 활성화 요인 요약

활성화 요인	세부내용
기획 및 프로그램	- 초기 : 모차르트 작품 공연 - 다양한 프로그램(오페라, 드라마, 콘서트 총 160여회) 공연
다양한 재원확보 프로그램	- 다양한 재원확보 프로그램(입장권 및 후원회 조직을 통한 자체수입) - 자체수입 74%, 보조금 26% - 자체수입 : 입장권 판매 47%, 후원금 14%, 방송중계권등 13% - 보조금 : 연방정부 40%, 잘츠부르크 주정부 20%, 잘츠부르크 시정부 20%, 관광진흥기금 20%
지역자원 활용	- 지역특색(역사인물)을 현대 감각의 공연작품으로 승화하여 관광산업과 접목시킴.
조직의 효율화	- 잘츠부르크축제재단 - 상근화 된 조직과 많은 수의 참여 인원(축제 기간 중 인턴 확대) - 지자체와 중앙정부와 육성지원 의지
사회 기여도	- 2001년 : 42일간 21만여 명(외국인 68%), 언론 33개국 546명, 15개 채널의 TV와 영화사, 30개 라디오방송국 취재, 매해 약 6백억원 소비) - 2007년 효과 : 한화 3600억원, 고용창출 효과는 3,800여명

### 3. 영국 에든버러군악대축제

#### 1) 축제개요 및 발전과정

에든버러는 옛 스코틀랜드 왕국의 수도로 스코틀랜드 행정·문화의 중심지이며 인구는 약 44만 9,000명이다. 축제로 연간 1,2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유럽의 꽃으로 불리는 도시이다. 에든버러에는 9종의 주요한 여름 축제들이 있는데 그 중 최대 규모의 축제는 프린지축제이고, 밀리터리 타투(군악대축제), 재즈 페스티벌, 영화제, 도서 축제 와 다양한 전시회들도 있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군악대축제의 정식명칭은 에든버러군악대축제(The Edinburgh Military Tattoo)이다. 에든버러군악대축제는 에든버러성에서 열리는데 1950년 에든버러국제축제 때 스코틀랜드군악대가 처음으로 참여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이 축제의 백미라 할 수 있는 것은 스코틀랜드 특유의 복장인 킬트(kilt) 복장에 독특한 백파이프를 연주하는 스코틀랜드 보병부대의 행진이다. 이외에도 세계 각국에서 군악대, 경찰악대, 민간공연단체들이 참여하여 축제를 펼친다.

에든버러 군악대축제는 1950년에 에든버러축제 때 처음으로 스코틀랜드 군악대가

참여함으로써 시작되었고 이 축제는 에든버러페스티벌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지역의 상징인 에든버러 성을 주요 공연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곳은 관광지와 축제를 연계한 장소이며 지역의 문화적 특성도 잘 살린 관광지이다. 이 축제는 평균 23일의 축제기간 중에 매년 2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다. 이들의 70%는 스코틀랜드 이외의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고, 전체 입장객의 35%는 해외에서 온 방문객이며, 또한 전 세계에서 약 1억 명의 시청자가 TV로 이 축제를 본다고 한다. 군악대 축제가 미치는 파급효과도 엄청나다. 공식조사에 의하면 군악대 축제가 스코틀랜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연간 7,200만 파운드(1,320억 원)에 달하고 있다.<sup>28)</sup>

## 2) 운영성과 및 활성화 요인

에든버러군악대축제의 성공사례와 운영프로그램 등은 국내·외의 음악축제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제주와 같은 세계의 관광지라는 공통점이 있고, 관악제라는 공통된 내용의 밴드축제가 있기 때문이다. 에든버러군악대축제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축제만으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유명 관광지로의 부상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 축제장소 선정 시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축제의 성격이 잘 조화를 이루는 장소를 선정하였다. 에든버러군악대축제의 경우 독특한 스코틀랜드 군악대의 전통과, 고성인 에든버러성채, 이 두 가지의 독특한 문화적, 공간적 자원을 절묘하게 조화시켰기 때문에 신비스럽고 매력적이다.

셋째, 최신기법의 조명이나 음향시설을 이용하여 축제공간이나 공연무대를 환상적으로 연출한다.

에든버러군악대축제는 고유하고 독특한 스코틀랜드군악대의 전통과, 고성인 에든버러성채, 이 두 가지의 독특한 문화적이고 공간적 자원을 절묘하게 조화시키고 여기에서 전문적인 연출가의 다양한 연기, 야간의 환상적인 조명 효과, 수준 높은 음향 등을 결합시켜 탄생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이라 할 수 있다. 활성화요인은 <표 9>와 같다.

<표 9> 에든버러군악대축제 활성화 요인

활성화 요인	세부 내용
기획 및 프로그램	- 최신 기법의 조명이나 음향시설을 이용하여 축제공간이나 공연무대를 환상적으로 연출.
다양한 재원확보	- 주요 공연인 에든버러 성에서의 공연이 20여일간 매일 공연, 관람석은 약 9천석이고 입장료가 5만원에서 1만 5천원까지 다양함.
지역 자원 활용	- 축제장소 선정 시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축제의 성격이 잘 조화를 이루는 장소를 선정함.

28) 김춘식·남치호, 『세계축제경영』, 김영사, 2002, 104쪽.



조직의 효율화	- 상설 집행부 인원은 많지 않으나 축제기간 다양한 인력활용 프로그램을 활용함.
사회 기여도	- 연간 1,200만명의 관객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유명 관광지로의 부상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음악축제와 국내를 대표하는 음악축제에 대한 활성화요인 연구를 바탕으로 제주에서 개최되는 국제규모의 음악축제인 제주국제관악제와 제주국제합창제의 운영현황, 조직 및 재원, 프로그램, 활성화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제주지역 음악축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된 결과를 토대로 제주지역 음악축제의 활성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축제의 근본목적인 지역민의 화합을 통한 지역사회 정체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축제아카데미 또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도를 향상시키고, 외국인을 포함한 도외 방문객의 참여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상승시켜 사회기여도를 높여야 한다.

둘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홍보방안 이외에, 음악축제 관련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국내·외 대도시 교류음악회, 축제의 상설 음악 단체와 해외 유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는 해외투어공연, 인터넷 네트워크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축제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각 음악축제별 맞춤형 공연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제주지역에서 관광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설공연 시스템 운영, 제주의 자연환경의 특성을 살린 제주세계자연유산지역에서의 기획공연, 관악제의 특성을 살린 야외관광지 음악회, 합창제의 특성을 살린 전시 공간 또는 호텔 실내공간에서의 음악회, 두 장르의 연합공연 또는 공연확대를 통한 오페라, 뮤지컬, 음악극과 같은 종합예술 작품개발 등 각 축제별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각 축제별 소속 음악단체를 활용한 상설 공연을 통한 수익, 수준 높은 음악회 개최를 통한 기업 협찬과 광고수익, 음악축제 관련 문화상품의 개발과 판매 등 축제로 인한 직·간접적인 수익창출 및 수익의 확대 등 축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열악한 제주의 지역경제 특성상 후원회 시스템의 운영과, 제주도내에 한정하지 않는 재원확보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세계적인 음악축제의 공통점은 후원회 시스템을 통하여 축제의 상당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마케팅 전문가를 활용한 국내·외의 유관기업에 대한 스폰서유치 및 제주의 특성을 살린 관광업계와의 패키지 협약을 통한 다양한 협찬방안 등 재원확보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

여섯째, 지역음악 애호가에 대한 육성과 지원, 수준 높은 전문음악인의 육성과 발

굴 등 균형적인 음악발전을 통한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교육 프로그램개발, 관악 및 성악 아카데미 운영, 음악축제 상설단체의 육성과 운영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인원·고호석, 「문화관광축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학회 문화관광연구 제5권 제1호, 2003.
- 강일중, 『공연예술축제를 만드는 사람들』, 연극과 인간, 2009.
- 고승익·김윤·이양희, 『관광 이벤트 경영론』, 백산출판사, 2002.
- 김철원·이석호, 『문화관광축제 육성방안』, 한국관광연구원, 2001.
- 김춘식·남치호, 『세계축제경영』, 김영사, 2002.
- 김태관·변금윤, 『제주지역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현황조사 및 양성방안 연구』, 제주문화예술재단, 2008.
- 류정아, 「제주 대표축제 개발 논의를 위한 워크숍」, “제주지역 축제의 발전현황과 대표축제의 가능성 탐색”, 제주문화관광연구소, 2008.
- 박미경, 『아시아 음악의 어제와 오늘』, “한국의 음악축제 현황”, 아시아음악학회, 2008.
- 박종호, 『유럽음악축제 순례기』, 한길아트, 2006.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변화와 성과(1996-2005)』, 2007.
- \_\_\_\_\_, 「2009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2009.
- \_\_\_\_\_, 『한국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006.
- 문화체육관광부(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09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 보고서」,
- 송정일, 『이벤트 플래닝』, 백산출판사, 2001.
- 양영근·김의근·정승훈·신동일,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지역 축제의 진단과 활성화 방안』, 2000.
- 오창현, 「제주 대표축제 개발 논의를 위한 워크숍」,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1년의 성과와 과제”, 제주문화관광연구소, 2008.
- 이흥재, 『문화경제학 만나기』, “문화산업총론” 한국문화경제학회, 김영사, 2001.
- 이은정·황경수·고태호, 『제주국제관악제가 제주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09
- 정강환, 「지역축제를 통한 관광마케팅 사례」, 지방행정, 2003.
-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2009 제주국제관악제 발전을 위한 포럼」, 2009년 8월 14일, 제주도문예회관 소극장
- 제주국제합창제조직위원회, 「한국합창음악과 제주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 제주문화관광연구소, 「제주 대표축제 개발 논의를 위한 워크숍」, 2008.
-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회, 『2007 제주축제 평가백서』, 2007.
- 김남일, 「지역 개발전략으로서 지역축제의 생산구조 및 그 효과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김석범, 「지역 축제의 특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제주도 탐라문화제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문성중, 「지역축제 이벤트평가를 위한 축제속성과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모형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이상철, 「문화관광이벤트로서의 제주국제관악제 활성화 방안」,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